

부모의 수용-거부가 부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 자기-상대방 효과 모델(APIM)의 적용

The Effects of Acceptance-Rejection of Parents in Law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Husbands and Wives

: Using APIM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전공

교 수 이 주 리*

Dept. of Social & Child Welfare, Chung-Ang Univ.

Professor : Lee, Ju-Lie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at the effects of fathers-in-law's and mothers-in law's acceptance-rejection on husbands' and wives' psychological well-being using APIM. Participants were 265 couples living Seoul-KyungKi-do and Jeju Island, and their mean age was 39.16 (husbands, SD=7.39) and 36.45 (wives, SD=7.36), respectively. The results of APIM showed that, in father-in law model, actor effects of husbands (the influence of fathers in law acceptance-rejection for husbands on husbands' psychological well-being) were more significant than actor effects of wives (the influence of fathers-in-law's acceptance-rejection for wives on wives' psychological well-being), while partner effects of wives (the influence of fathers in law acceptance-rejection for wives on husbands' psychological well-being) more significant than partner effects of husbands (the influence of fathers' in law's acceptance-rejection for husbands on wives' psychological well-being). In mother-in law model,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oth between actor effects of wives and actor effects of husbands, and between partner effects of wives and partner effects of husbands.

▲주요어(Key Words) : 시부/장인의 수용-거부(fathers in law's acceptance-rejection), 시모/장모의 수용-거부(mothers in law's acceptance-rejection), 심리적 복지(psychological well-being), 자기-상대방 효과모델(APIM)

I. 서론

개인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령대마다 각각 다를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학업성취, 외모, 또래 관계, 혹은 부모와의 관계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 성인이 된 20대에는 취업 문제나 혹은 교제 중인 데이트 파트너와의

관계 등이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결혼을 한 기혼자들은 직장 승진, 고용 안정 등과 더불어 자녀 문제나 배우자와의 관계 등 주로 자신이 이룬 가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심리적 복지와 큰 연관이 된다.

기혼자의 심리적 복지와 관련된 이와 같은 변수들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요인들이지만, 이외에 우리나라 문화에서 더 크게 각인이 되는 요인이 있다. 그것은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이다. 물론 서구 사회에서도 기혼자들이 맺게

* 주저자 · 교신저자 : 이주리 (E-mail : julie@cau.ac.kr)

되는 시부모 혹은 장인·장모 등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가 개인의 심리적 부적응과 부부생활의 스트레스를 야기하기도 한다(Bryant, Conger, & Meehan, 2001; Turner, Young, & Black, 2006). 그러나, 결혼이 개인과 개인의 결합을 넘어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는 의미를 가진 한국 사회의 문화에서는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가 남녀의 결혼 준비 시기부터 시작하여 평생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면서 개인의 심리적 복지에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Han(2010)의 연구에서 아내가 시부모와 자주 교류하며 시가와와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남편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이는 아내의 생활만족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남편이 장인·장모와 자주 교류하고 처가 식구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아내의 생활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교 문화 아래 한국의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에서는 남편과 처가 부모와의 관계보다 아내와 시가 부모와의 관계가 기혼자들의 결혼 생활에 훨씬 더 큰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 관련 국내 연구들의 대부분이 며느리와 시부모 간 관계를 다루었다는 점이 이를 반영한다 (Koo, 1999; Kim, 2001; Kim, & Choi, 2003; Park, & Lee, 2003; Park, & Cho, 2010; Song, & Lee, 1995; Lee, 2003; Han, & Kim, 1994). 과거 서구 사회의 학자들이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가정에서 시부모와 관련하여 며느리들이 여러 가지 고충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Freedman, 1966; Nakane, 1967; Pasternak, 1972; Wolf, 1972).

이러한 문화적 분위기는 한국, 중국, 미국 중 한국이 가장 남성 중심적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최근의 Lee, Shim., & Choi(2006) 연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의 연구대상자들은 친밀감과 관련된 이미지로 아내, 딸, 장모를 상위권으로 올렸고, 장인도 비교적 상위권이였다. 장인의 친밀감 이미지는 아들보다도 더 높았다. 그러나,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등 시가 식구들은 모두 친밀감과 거리가 먼 하위권에 있었으며, 특히 시어머니가 셋 중 가장 하위권이였다. 반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권력성은 장모보다도 더 높게 느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로 인해 남편의 원가족인 시가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가정 생활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제적 지지의 제공은 친정어머니보다 시어머니에게 더 많이 이루어지지만, 정작 수혜는 친정어머니로부터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Kim, & Yoo, 1994). 반면, 같은 연구에서 정서적 지지는 제공과 수혜 모두 시어머니보다 친정어머니와 관련이 되었다. Cho, & Shin(1992) 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맥락이 나타나는데, 노모와의 관계에 따르는 비용은 친정어머니보다 시어머니로 인해 월등하게 더 많이 지출되는 반면, 노모로부터 받는 보상과 관계의 질은 시어머니보다 친정어머니와 더 관련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 한국의 아내들은 결혼 생활에서 시부모로 인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며느리가 고부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는 주로 간섭 행위, 관심욕구, 경제적 부담, 자녀교육, 차별 대우, 생활습관 등 시어머니로부터 정서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통제·거부되는 것과 관련이 있었으며(Park, & Lee, 2003), 이처럼 시어머니와 정서적으로 갈등 상황에 노출될수록 며느리의 우울과 불안 수준은 높아지고 심리적 복지감은 낮아졌다(Kim, 1994). 한 아침 상담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가족 간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본 Kim(2004)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가정 내 갈등 중 아내와 시모 간 갈등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결과로, 우리나라에서 시부모와의 관계가 아내의 심리적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기혼 여성들의 심리적 복지에 시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문화적 가치가 변하면서 기혼자들이 겪는 가정 생활에서의 갈등과 스트레스는 더 이상 이전처럼 아내와 시부모 간 관계에 국한되지 않게 되었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많은 경우 출산과 육아에 있어 처가(친정)의 도움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처가와와의 교류가 잦아지면서 처가의 관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과거 시부모의 관여와 간섭으로 인해 며느리와 시가 간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종종 남편과 처가와와의 갈등도 표출된다. 이는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가 개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변했음을 시사한다.

최근 Oh(2011)은 장모와의 관계에서 사위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유형으로 능력조건비하, 일상생활간섭, 차별대우, 불편한 상호작용, 생활양식 차이, 과도한 요구 등을 도출하였다. 이는 장모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통제·거부되는 상황으로, 앞서 언급한 며느리가 시모와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들(Park, & Lee, 2003)과 비슷한 맥락이다. 아내와 시가 간 갈등 뿐 아니라, 이제는 남편과 처가 간 갈등도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NEWSis, 2012; bntnews, 2012; MKnews, 2012). 남편들도 장모의 간섭과 직설적인 언행으로 인해 심리적인 상처를 받게 되며 전통적으로 아내들이 겪었던 명절 스트레스 또한 이제는 남편들도 처가에서 마찬가지로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시가 뿐 아니라 처가와와의 갈등적 관계가 개인의 심리적 복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현 한국 사회의 상황을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이러한 두 변수 간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검증과 분석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여전히 시가와 아내 간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월등히 많으며(Koo, 1999; Kim, 2001; Kim, & Choi, 2003; Kim, 1994; Park, & Lee, 2003; Park, & Cho, 2010; Song, & Lee,

1994; Lee, 2003; Han., & Kim, 1994), 처가와 남편 간 관계를 다룬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Oh, 2011; Han, 2010).

그러므로, 이제는 기혼자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서 아내와 시가 뿐 아니라, 남편과 처가 간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남편과 아내는 서로 짝 관계에 있는 커플 자료로서 부부가 한 쌍으로 코딩되어야 올바른 검증을 할 수 있다. 단순히 남편 집단의 평균과 아내 집단의 평균이 기혼자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커플 관계에서는 두 개인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특성이 자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신의 특성이 상대방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남편과 처부모와의 관계는 남편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더불어 아내의 심리적 복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내와 시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아내의 심리적 복지 뿐 아니라 남편의 심리적 복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커플 자료의 분석은 APIM 을 통해 가능해진다. APIM 에서는 자신의 특성이 자신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 효과', 자신의 특성이 상대방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방 효과'라 지칭한다. APIM 에서는 남편 A 와 짝을 이루는 아내 A', 남편 B와 짝을 이루는 아내 B' 등의 방식으로 코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와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PIM을 통해 다음을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남편과 장인·장모와의 관계가 남편의 심리적 복지(남편의 자기효과)와 아내의 심리적 복지에 각각 미치는 영향(남편의 상대방 효과) 및 아내와 시모·시부와의 관계가 아내의 심리적 복지(아내의 자기효과)와 남편의 심리적 복지에 각각 미치는 영향(아내의 상대방 효과)을 분석한다. 둘째, 남편의 자기효과와 아내의 자기효과, 그리고 남편의 상대방 효과와 아내의 상대방 효과 중 각각 어느 쪽의 효과가 더 유의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서울과 경기 지역, 그리고 제주도 지역의 부부 400쌍이었다. 짝을 이루고 있는 400쌍의 남편과 아내는 각각 장인-장모용, 시부-시모용의 설문지를 1부씩 받았으며, 이 중 280쌍이 설문지를 작성하여 연구자에게 되 돌려 주었다. 수거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15쌍의 설문지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APIM 을 사용한 커플 자료의 분석이므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짝을 이루어 응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 둘 중 한명이라도 응답이 불성실하

였다면 그 사례는 최종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265쌍의 부부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편과 아내의 평균연령은 각각 39.16세(SD=7.39), 36.45세(SD=7.36)였다. 남편의 교육수준은 대졸 50.4%, 대학원 졸 16.9%, 전문대 졸 15.5%, 고졸 15.1%, 고졸 미만 2.2% 순이었고, 아내의 교육수준은 대졸 40.8%, 전문대졸 25.3%, 고졸 23.5%, 대학원 졸 7.9%, 고졸 미만 2.5% 순이었다. 부부의 고용 상태로는 남편의 경우 76.6% 가 정규직, 그 외 기타 15.1%, 비정규직 5.8%, 무직(일 자리를 찾지 않고 있음) 2.5% 등이었다. 아내의 경우, 정규직 32.9%, 무직(일 자리를 찾지 않고 있음) 27.8%, 기타 19.5%, 비정규직 11.9%, 무직(일 자리를 찾고 있음) 7.9% 등으로 나타났다.

2. 측정 도구

(1) 시부·시모 수용-거부

아내와 시부·시모 간 관계는 각각 Rohner & Khaleque (2005)의 부모 수용-거부 척도(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PARQ])의 시부모 버전인 Rohner(2010)의 ILARQ (In Law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로 측정하였다. 이는 총 60문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4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 온정/애정(warmth/affection) 2) 적대/공격(hostility/aggression) 3) 무관심/방임(indifference/neglect) 4) 미분화된 거절(undifferentiated rejection). 4점 Likert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이 높은 것이다. 문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정/애정은 20문항이며 문항의 예로는, '내가 잘 했을 때 내가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도록 해주신다.', '남들에게 날 칭찬하신다.', '따뜻하고 애정어린 말투로 나에게 말씀하신다.' 등이 있다. 둘째, 적대/공격은 15문항이며 '화가 났을 때 화풀이를 나에게 하신다.', '나 때문에 쉽게 화가 나신다.', '나에게 여러 번 불쾌한 말들을 하신다.' 등이다. 셋째, 무관심/방임 15문항으로, '나에게 해주시기로 한 것들에 대하여 잊어버리신다.',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주목하지 않으신다.', '계획을 짜실 때 내가 무엇을 원하고 좋아할지를 염두에 두신다(역).' 등이다. 넷째, 미분화된 거절은 10문항이며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나의 탓이라고 생각하신다.', '날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신다.', '날 싫어하는 것 같아 보이신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시부용 .863, 시모용 .954였다.

(2) 장인·장모 수용-거부

남편과 장인·장모 간 관계도 시부·시모 수용-거부와 마찬가지로 각각 Rohner & Khaleque(2005)의 부모 수용-거부

척도(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PARQ])의 처부모 버전인 Rohner(2010)의 ILARQ (In Law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로 측정하였다. 이는 시부·시모 수용-거부 척도와 마찬가지로 온정/애정(20문항), 적대/공격(15문항), 무관심/방임(15문항), 미분화된 거절(10문항) 등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들의 내용 또한 시부·시모 수용-거부 척도와 동일하며, 4점 Likert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이 높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장인용 .958 장모용 .952 로 나타났다.

(3) 심리적 복지

본 연구에서 심리적 복지는 Olson과 Barners(1982)와 Kim (1998)의 연구를 토대로 Lee(2001)가 결혼생활만족, 건강만족, 경제상태만족, 자녀와의 관계만족, 여가생활만족, 이웃 및 주변환경만족, 현재 나의 위치와 역할만족, 친인척 관계만족,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만족 등 9개 문항으로 구성된 심리적 복지의 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는, '나는 나의 결혼생활에 만족한다.', '나는 현재 나의 위치와 역할에 만족한다.', '나는 친인척과의 관계가 만족스럽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에 만족한다.' 등이다. 5점 likert척도로서 본 연구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남편 .797, 아내 .875 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남편과 처부모, 아내와 시부모와의 관계가 부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Figure 1> 과 같이 APIM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HLM 6.0이었다. APIM의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Figure 1>에서 보듯, APIM 에서는 총 4개의 변수들(남편의 장모-수용 거부, 남편의 심리적 복지, 아내의 시모 수용-거부, 아내의 심리적 복지)이 설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또 다른 독립적인 분석 모형으로 남편의 장인-수용 거부, 남편의 심리적 복지, 아내의 시부 수용-거부, 아내의 심리적 복지가 설정되었다. <Figur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편의 자기 효과는 남편의 장모(장인) 수용-거부가 남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며, 아내의 자기 효과는 아내의 시모(시부) 수용-거부가 아내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다. 남편의 상대방 효과는 남편의 장모(장인) 수용-거부가 아내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며, 아내의 상대방 효과는 아내의 시모(시부) 수용-거부가 남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다. 각각의 자기효과 간, 그리고 상대방 효과 간 크기의 비교는 가변수(C) 처리된 더미 코딩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 아내를 기준으로 아내가 C=0, 파트너 남편은 C=1 로 코딩되었다. 이를 통해 파트너 C=1 의 부가적 효과가 추정된다.

둘째, APIM 에서는 <Figure 1>에서 처럼 종속변수의 잔차 간 상관(U와 U' 간 쌍방향 설정)이 포함된다(Cook & Kenny, 2005). 잔차 U와 U' 는 각각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설정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장모(장인)과 시모(시부)의 수용-거부가 종속변수인 부부의 심리적 만족도를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이처럼 연구자가 설정한 독립변수에 의해 종속변수가 예측되지 못하는 부분은, 추상적인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측정해야 하는 사회과학분야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분석 과정에서 고려해주어야 한다. 기혼 남녀의 심리적 복지에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만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부부는 공동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그 이외에 자녀 문제나 부부 문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독립변수 이외에 제 3의 변수로 설명되는 나머지 부분들을 통제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설정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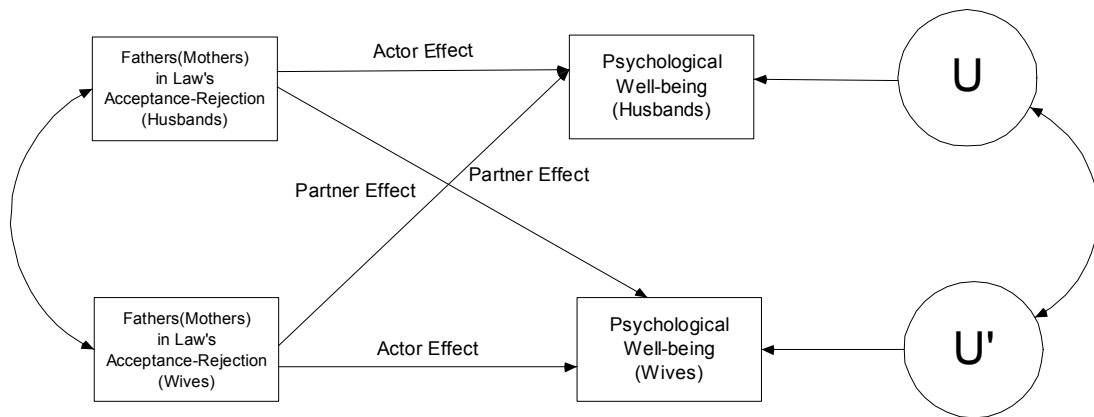


Figure 1. The Influences of Fathers and Mothers in Law's Acceptance-Rejection on Husbands' and Wives' Psychological Well-being : APIM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보다 순수하게 추정하기 위해, U와 U' 간 쌍방향 경로를 모형에 포함하여 종속변수들의 잔차 간 상관을 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연구 결과

1. 기술 통계

주요 변수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가 <Table 1>을 통해 제시되었다.

2. 상관관계

APIM 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부 수용-거부와 남편, 아내의 심리적 복지를 제외하고 본 연구의 APIM에서 설정된 변수들 간 공변성이 대부분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모두 $p < .01$). 장인, 장모, 시모로부터 수용될수록, 남편과 아내의 심리적 만족도는 모두 높아졌다.

3. APIM

시부, 시모, 장인, 장모 수용-거부가 부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APIM 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커플 자료는 부부가 한 쌍으로서, 부부의 구성원은 남편과 아내로 각각 구분 가능하다. 이처럼 구분 가능한 자료는 HLM에서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추정된다¹⁾.

- 1) 1수준 모형에서 C는 가변수 처리된 더미 코딩 변수이다. 이를 통해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내가 C=0 으로 코딩되었고, 남편은 C=1 로 코딩되었다. 방정식에서 C=0 의 효과를 추정하는 부분은 $\beta_{0j} + \beta_{1j}XA_{ij} + \beta_{2j}XP_{ij}$ 이며, C=0에 비해 C=1 의 추가적인 효과를 추정하는 부분은 $\beta_{3j}C_{ij} + \beta_{4j}XA_{ij}C_{ij} + \beta_{5j}XP_{ij}C_{ij}$ 부분이다. 이 C=1 의 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남편과 아내의 자기효과 간 상대적 크기의 차이와 상대방 효과 간 상대적 크기의 차이가 각각 유의한 것이다. 만약, C=1 의 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남편과 아내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는 각각 동일한 것이다. Y는 종속변수, β_{0j} 와 $\beta_{3j}C_{ij}$ 은 각각 절편이며, X는 독립변수, A는 행위자, P는 상대방, r은 오차이다. 또한, 분석과정에서 종속변수들의 잔차 간 쌍방향성을 설정하였다(잔차 간 상관).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Min.-Max.	Mean	SD
Fathers in Law Acceptance-Rejection (Husbands)	1-4	3.19	0.44
Fathers in Law Acceptance-Rejection (Wives)	1-4	2.83	0.31
Mothers in Law Acceptance-Rejection (Husbands)	1-4	3.23	0.40
Mothers in Law Acceptance-Rejection (Wives)	1-4	3.03	0.47
Husbands' Psychological Well-being	1-5	3.69	0.68
Wives' Psychological Well-being	1-5	3.63	0.64

Table 2. Correlations

	1. Fathers in Law Acceptance-Rejection (Husbands)	2. Fathers in Law Acceptance-Rejection (Wives)	3. Mothers in Law Acceptance-Rejection (Husbands)	4. Mothers in Law Acceptance-Rejection (Wives)	5. Husbands' Psychological Well-being	6. Wives' Psychological Well-being
1	1					
2	.179**	1				
3	.796**	.174**	1			
4	.476**	.049	.486**	1		
5	.267**	-.057	.257**	.276**	1	
6	.261**	-.115	.269**	.375**	.525**	1

** $p < .01$

1수준 모형

$$Y_{ij} = \beta_{0j} + \beta_{1j}XA_{ij} + \beta_{2j}XP_{ij} + \beta_{3j}C_{ij} + \beta_{4j}XA_{ij}C_{ij} + \beta_{5j}XP_{ij}C_{ij} + r_{ij}$$

2수준 모형

$$\beta_{0j} = \gamma_{00} + e_j$$

$$\beta_{1j} = \gamma_{10}$$

$$\beta_{2j} = \gamma_{20}$$

$$\beta_{3j} = \gamma_{30}$$

$$\beta_{4j} = \gamma_{40}$$

$$\beta_{5j} = \gamma_{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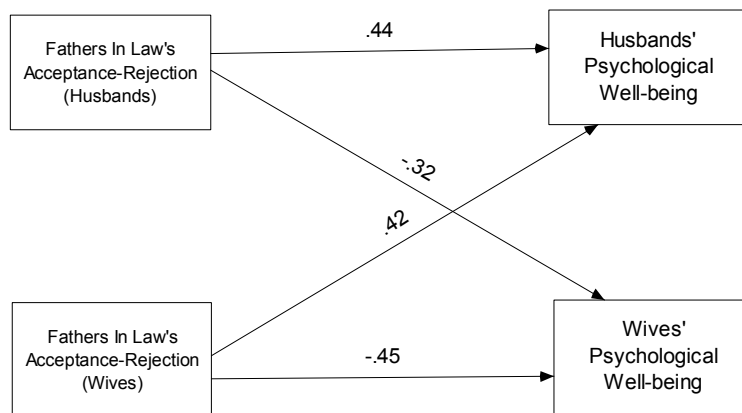
HLM 분석 결과는 <Table 3> 과 <Table 4>를 통해 알 수 있다.

<Table 3>의 결과들을 통해 보면, 첫째, 시부가 아내에 대해 수용적일수록 아내의 심리적 복지는 낮아진 반면($\beta = -.45, p < .01$), 둘째, 시부가 아내에 대해 수용적일수록 남편의 심리적 복지는 높아졌다($\beta = .42, p < .001$). 셋째, 아내에 대한 시부 수용-거부가 아내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아내의 자기효과)에 비해 남편에 대한 장인 수용-거부가 남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남편의 자기효과)이 유의하게 큰 반면($\beta = .89, p < .001$), 넷째, 아내에 대한 시부 수용-거부가 남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아내의 상대방 효과)에 비해 남편에 대한 장인 수용-거부가 아내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남편의 상대방 효과)은 유의하게 작았다($\beta = -.74, p < .001$). 즉, 남편의 자기효과가 아내의 자기효과보다 유의하게 더 컸으며(남편과 아내의 자기 효과 간 비교), 남편의 상대방효과가 아내의 상대방효과보다 유의하게 더 작았다(남편과 아내의 상대방 효과 간 비교).

Table 3. The Results of APIM (Fathers in law)

	Estimates	SE
The Effects of C=0(Wives)		
Intercept	3.55***	0.40
Fathers in Law' Acceptance-Rejection->Wives' Psychological Well-being (Wives' Actor Effects)	-.45**	0.13
Fathers in Law' Acceptance-Rejection->Husbands' Psychological Well-being (Wives' Partner Effects)	.42***	0.09
The Additional Effects of C=1(Husbands)		
Intercept	-.36	0.44
Husbands' Additional Actor Effects	.89***	0.09
Husbands' Additional Partner Effects	-.74***	0.17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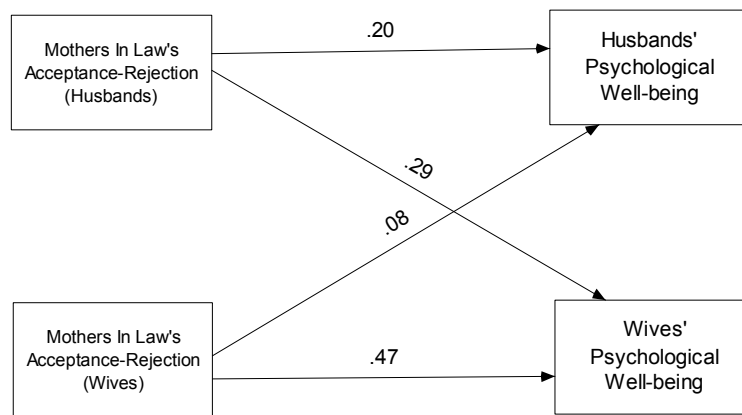
Note. Omit correlation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between residuals of dependant variables from this figure for clearness

Figure 2. Pure Estimates : Husbands' and Wives' Actor and Partner Effects

Table 4. The Results of APIM (Mothers in law)

	Estimates	SE
The Effects of C=0(Wives)		
Intercept	1.96***	0.32
Mothers in Law' Acceptance-Rejection->Wives' Psychological Well-being (Wives' Actor Effects)	.47***	0.09
Mothers in Law' Acceptance-Rejection->Husbands' Psychological Well-being (Wives' Partner Effects)	.08	0.11
The Additional Effects of C=1(Husbands)		
Intercept	.22	0.35
Husbands' Additional Actor Effects	-.27	0.16
Husbands' Additional Partner Effects	.21	0.16

*** $p < .001$



Note. Omit correlation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between residuals of dependant variables from this figure for clearness

Figure 3. Pure Estimates : Husbands' and Wives' Actor and Partner Effects

<Table 3> 을 토대로, 남편의 순수계수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의 장인 수용-거부가 남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순수 계수(남편의 자기 효과)는 아내의 자기 효과 계수에 남편의 자기효과 부가적 계수를 더하여 $-.45 + .89 = .44$ 가 된다. 둘째, 남편의 장인 수용-거부가 아내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순수 계수(남편의 상대방 효과)는 아내의 상대방 효과 계수에 남편의 상대방 효과 부가적 계수를 더하여 $.42 + (-.74) = -.32$ 가 된다.

간략한 그림으로서 남편과 아내 각각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의 순수계수를 제시하면 <Figure 2> 와 같다.

다음으로, 장모와 시모 수용-거부가 각각 남편과 아내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Table 4> 의 결과를 보면, 첫째, 시모가 아내에 대해 수용적일수록 아내의 심리적 복지는 높아졌고($\beta = .47, p < .001$), 둘째, 그러나, 아내에 대한 시모의 수용-거부가 남편의 심리적 복지

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beta = .08, ns$). 셋째, 아내의 자기효과에 비해 남편의 부가적인 자기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아내에 대한 시모 수용-거부가 아내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남편에 대한 장모 수용-거부가 남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동일하였고($\beta = -.27, ns$), 넷째, 아내의 상대방효과에 비해 남편의 부가적인 상대방 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아, 아내에 대한 시모 수용-거부가 남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남편에 대한 장모 수용-거부가 아내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동일하였다($\beta = .21, ns$). 즉, 남편의 자기효과와 아내의 자기효과, 남편의 상대방효과와 아내의 상대방효과 크기는 각각 동일하였다.

남편의 자기효과(남편의 장모 수용-거부가 남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순수계수는 아내의 자기효과 계수에 남편의 자기효과 부가적 계수가 더해져 $.47 + (-.27) = .20$ 으로 추정되었고, 남편의 상대방 효과 순수계수(남편의 장모 수용-거부가

아내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는 아내의 상대방 효과 계수에 남편의 상대방 효과 부가적 계수가 더해져 $.08 + .21 = .29$ 로 추정되었다.

간략한 그림으로서 남편과 아내 각각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의 순수계수를 제시하면 <Figure 3> 과 같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시부, 시모, 장인, 장모의 수용-거부가 남편과 아내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APIM 을 통해 분석하였다. 시부·장인 모형과 시모·장모 모형 각각에 대하여 남편과 아내의 자기효과(자신의 특성이 자신의 결과에 미치는 효과)와 상대방효과(자신의 특성이 상대방의 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각각 동시에 검증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할 수 있었다.

첫째, 시부·장인 모형에서 아내의 자기효과(아내에 대한 시부의 수용-거부가 아내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적인 예상과 상식을 뒤엎는 결과가 나타났다. 시부가 아내에 대해 수용적일수록 아내의 심리적 복지는 오히려 낮아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단순히 아내에 대한 시부의 거부가 아내의 심리적 복지를 오히려 향상시키므로 아내의 심리적 복지 증진을 위해 시부와 아내의 관계 단절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곤란하다. 시아버지와 아내 간 관계가 아내의 심리적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본 연구결과와의 비교대상 근거를 찾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독단적인 결론을 논의하기는 어렵다. 다만, 시어머니와 아내 간 부정적인 관계가 아내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심리적 복지를 저하시킨다는 선행연구들(Kim, 1994; Park, & Lee, 2003)을 통해 볼 때 본 연구결과가 일반적인 예측과는 반대로 나온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무엇이 이러한 연구결과를 이끌었는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많은 관련 연구가 축적되어야 한다. 만약, 후속 연구들을 통해 이 연구결과가 지지되지 못한다면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의 불성실한 응답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후속 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연구결과가 지지된다면, 오랫동안 축적되어 생활 곳곳에 여전히 잔재하고 있는 가부장적 한국 문화 속에서 시부의 수용적인 태도가 오히려 세대와 가치관이 다른 젊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간섭으로 여겨지거나 어색하게 여겨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본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 대단히 한계가 있다.

반면, 아내의 상대방 효과 (아내에 대한 시부의 수용-거부가 남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는 예측한대로의 결과였다. 시부가 아내에 대해 수용적일수록 남편의 심리적 복지는

높아졌고, 시부가 아내에 대해 거부적일수록 남편의 심리적 복지는 낮아졌다. 이는 시댁과 아내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남편의 입장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자신의 원부모와 아내가 서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남편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남편의 심리적 복지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아내가 시부모와 자주 교류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남편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는 Han(2010)의 연구결과가 이를 지지한다.

아내의 자기효과와 남편의 자기효과를 비교해보면, 본 연구에서 아내에 대한 시부의 수용-거부가 아내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남편에 대한 장인의 수용-거부가 남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에 대해 시부가 수용적일수록 아내의 심리적 복지가 저하되는 효과보다 남편에 대해 장인이 수용적일수록 남편의 심리적 복지가 증진되는 효과가 유의하게 더 큰 것이다. 이는 아마도 남편과 장인이 동성으로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들의 발달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더 큰 것처럼(Dumka et al., 2009), 아내와 시부 간 관계보다는 남편과 장인 간 관계가 더 의미 있는 관계일지도 모른다.

아내의 상대방 효과와 남편의 상대방 효과를 비교해보면, 아내에 대한 시부의 수용-거부가 남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남편에 대한 장인의 수용-거부가 아내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작았다. 남편과 장인 간 관계가 아내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보다 아내와 시부 간 관계가 남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이다. 이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가치관이 변하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출산과 육아 문제로 처가의 영향이 증진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부의 결혼생활에 시가와 아내의 관계가 더 깊숙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남편과 자신의 원부모 간 관계로 인해 아내가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나 심리적 안녕감보다는 아내와 자신의 원부모 간 관계로 인해 남편이 경험하게 되는 중간자적 역할로서의 스트레스나 심리적 안녕감이 더 큰 것이다. 우리나라 가정 내 갈등 중에서 처부모와 사위 간 갈등보다 시부모와 며느리 간 갈등이 더 많이 보고되었다는 Kim(2004)의 연구가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한다.

둘째, 시모·장모 모형에서 아내의 자기효과(아내에 대한 시부의 수용-거부가 아내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를 살펴보면, 시모가 아내에 대해 수용적일수록 아내의 심리적 복지는 높아졌다. 이는 충분히 예측된 결과였으며, 시어머니와 정서적으로 갈등이 적을수록 며느리의 심리적 복지감이 증진되었다는 선행연구(Kim, 1994)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시가 식구들은 모두 친밀감의 정서와 거리가 멀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는 친밀감 영역에서 최하위권으로 보고되었다는 Lee, Shim, & Choi(2006)의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고부관계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긴장되고 까다로운 관계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친정어머니로부터는 경제적 혹은 정서적인 수혜를 더 많이 받지만, 경제적 지지의 제공은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더 많이 이루어져 (Kim, & Yoo, 1994; Cho, & Shin, 1992) 고부관계는 민감하고 불평등하게 느껴지기 쉽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에 대한 시어머니의 수용적인 태도는 아내의 심리적 복지를 유의하게 증진시키는 데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아내의 상대방 효과를 살펴보면, 아내에 대한 시모의 수용-거부가 남편의 심리적 복지는 유의하게 향상시키지 못하였다. 아내에 대한 시부의 수용-거부가 남편의 심리적 복지를 유의하게 증진시킨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아마도 우리나라 기혼 가정에서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시어머니와 아내 간에 발생하게 되는 예민한 관계를 대부분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므로 남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은 결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관련 연구들이 보다 많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아내의 자기효과와 남편의 자기효과를 비교해보면, 아내에 대한 시모의 수용-거부가 아내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남편에 대한 장모의 수용-거부가 남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모가 수용적일수록 아내의 심리적 복지가 증진되는 효과만큼이나 장모가 수용적일수록 남편의 심리적 복지도 증진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시부·장인 모형에서 아내의 자기효과에 비해 남편의 자기효과가 더 큰 영향을 가졌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출산과 육아 문제로 인해 기혼자 부부에 대한 처가, 특히 장모의 영향력이 커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다. 또한, 남편들도 아내들이 시모로부터 스트레스와 고충을 겪는 것처럼 장모의 간섭과 직설적인 언행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는다는 언론보도들(NEWSis, 2012; bntnews, 2012; MKnews, 2012)이 데이터를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아내의 상대방 효과와 남편의 상대방 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동일하였다. 이는 아내의 상대방 효과(아내에 대한 시모의 수용-거부가 남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상대방 효과(남편에 대한 장모의 수용-거부가 아내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아내가 중간자적 역할에 있지만 남편과 장모 간 관계로 인해 자신의 심리적 복지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내와 친정어머니 간 여성들의 관계지향적인 특성 때문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더구나, 친정어머니로부터 결혼 후에도 경제적·정서적 수혜를 많이 받고 있고, 친정어머니와의 관계의 질이 더 높다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비해) 연구결과들(Kim, & Yoo, 1994; Cho, & Shin, 1992)을 토대로 볼 때, 전반적인 애정을 바탕으로 한 아내와 장모 간

관계는 다른 변수들(본 연구에서 남편과 장모 간 관계)로 인해 크게 좌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APIM 을 통해 시부·장인 모형, 시모·장모 모형 각각에 대하여 남편과 아내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각각 검증하였다. 배우자 가족과 관련하여 시부모 혹은 처부모 등으로 포괄적으로 다루었거나, 시모 혹은 장모와의 관계만을 분석하였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를 시부, 시모, 장인, 장모로 구체화시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남편과 아내의 자기 효과 뿐 아니라, 각각의 관계에 따라 상대방 효과까지 유의하게 나온 것은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부부의 생활은 여전히 배우자의 가족 관계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Kim, 1996).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시부 모형에서 아내의 자기효과가 명백하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시부가 아내에 대해 수용적일수록 아내의 심리적 복지가 오히려 낮아진 본 연구결과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많은 관련 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평균 30대 중·후반의 부부들로서,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모든 연령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40대의 며느리들이 다른 연령의 며느리들보다 전반적으로 고부갈등을 더 많이 겪고 있었다는 연구결과(Kim, 1994)를 고려해 볼 때,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를 표집하여 연령별로 APIM 모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경기 지역과 제주도 지역에서만 데이터가 표집되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 효과까지 고려하여 광역시와 읍면 단위의 시골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데이터는 연구자가 표집이 가능한 지역을 통해 편의 표집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대표성 있는 집단을 추출하여 본 연구결과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 권장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부/장인 모형에서는 아내의 자기효과(시부의 수용-거부가 아내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남편의 자기효과(장인의 수용-거부가 남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가 유의하게 컸고, 아내의 상대방 효과(시부의 수용-거부가 남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남편의 상대방 효과(장인의 수용-거부가 아내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는 유의하게 작았다. 둘째, 시모/장모 모형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자기 효과 간 크기와 남편과 아내의 상대방 효과 간 크기가 모두 동일하였다.

REFERENCE

- 뉴스시스 NEWSis.(201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120_0010254122&cID=10201&pID=10200
- 한경닷컴 bntnews.(2012).
 Bryant, C. M., Conger, R. D., & Meehan, J. M.(2001). The influence of in-laws on change in marital succ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 614-626.
- Cho, B. & Shin, H.(1992). A Social Exchange Perspective on Qualit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Employed Daughters / Daughters-in-law and Their Elderly Mothers / Mothers-in-law.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2(2), 83-98.
- Cook, W. L. & Kenny, D. A.(2005).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 101-109.
- Dumka, L. E., Gonzales, N. A., Bonds, D. D. & Millsap, R. E.(2009). Academic success of Mexican origin adolescent boys and girls: The role of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and cultural orientation. *Sex Roles*, 60, 588-599.
- Freedman, M.(1966). *Chinese lineage and society: Fukien and Kwangtung*. London: Athlone Press.
- Han, E. & Kim, T.(1994). Family Support Satisfaction and Caregiving Burden by Familism.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4(1), 95-116.
- Han, K.(2010). *The couple's Role Performance and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 Kook University, Gyeonggi-do.
http://bntnews.hankyung.com/apps/news?popup=0&nid=05&c1=05&c2=05&c3=00&nkey=201202022151543&mode=sub_view
- Kim, B.(2004). A Study of Family Conflict Communication described in the Television Consulting Program. *Broadcasting & Communication*, 5(1), 123-149.
- Kim, J. & Choi, S.(2003). A Qualitative Study for Hyo-Shim Psychology of Korean Wome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8(1), 49-67.
- Kim, M.(1996). Changing relationships between daughters in law and mothers in law in urban South Korea. *Anthropological Quarterly*, 69(4), 179-192.
- Kim, O.(1998). *Single mothers' and adolescents' family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eonnam.
- Kim, S. & Yoo, Y.(1994). A Study on the Mutual Support between Married Women and Their Mother-in-law and their Mother.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2(1), 209-129.
- Kim, S.(2001). Philosophical Analysis of Conflict between Mother and Daughter-in-law. *Korean Association of Feminist Philosophers, first issue*, 95-111.
- Kim, T.(1994). *Study the Relationships of Conflict, the ways of Coping and Psychological health among daughters-in-law*. Unpublished master's thesis. Ehaw women's University, Seoul.
- Koo, J.(1999). *The Difference of complication in point of view of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Unpublished master's thesis. Ehaw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H.(2003). The Factorial Structure of the Conflict Source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and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19, 31-59.
- Lee, M., Shim, S. & Choi, S.(2006). A Comparative Study of the Affective Meaning of Family-Related Identity: The Case of Korean, Chinese, and the U.S. College Students.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at Sogang University*, 14(1), 110-148.
- Lee, S. (2001). *Marital conflic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old married coup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eonnam.
- MKnews(2012).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41453>
- Nakane, C.(1967). *Kinship and economic organization in rural Japan*. N.Y.: Athlone Press.
- Oh, H.(2011). *Stress Types, Coping Styles, and Relationship Quality with Mothers-in-Law Perceived by Sons-in-Law*.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yungnam.
- Olson, D. H. & Barnes, H. L.(1982). *Family inventory of quality of life*.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Park, K. & Yi, Y.(2003). Stress Perceived by Daughters-in-Law and Their Coping.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2, 79-104.

- Park, S. & Cho, S.(2010). Factors Contributing to Conflicts between Daughters-in-Law and Parents-in-Law.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5(3), 5-26.
- Pasternak, B.(1972). *Kinship and community in two Chinese villages*.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Rohner, R. P.(1984, 1991, 2003, 2005, 2010).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Center of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Connecticut.
- Song, H. & Lee, C.(1995). A Study on the Stress of Parent-in-law Caregiving.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3(3), 115-123.
- Turner, M. J., Young, C. R., & Black, K. I.(2006). Daughters-in-law and mothers-in-law seeking their place within the family: A qualitative study of differing viewpoints. *Family Relations*, 55, 588-600.
- Wolf, M.(1972). *Women and the family in rural Taiwan*.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접수일 : 2012년 05월 03일

심사일 : 2012년 06월 24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7월 10일